

비대면·디지털...코로나, 금융권 업무 바꾸다

NH농협은행 소상공인 모바일 비대면, 하나은행 카드업무도 광주은행 대출서류 전자제출 확대, 신한 여신 전 과정 자동화

금융권이 코로나19로 디지털 영업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해마다 점포와 창구인원을 축소해 온 금융권은 코로나19 여파로 은행업무를 점차 비대면으로 돌리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광주지역 국내은행 지점·출장소는 188개로 5년 전인 2014년에 비해 10곳(-5.1%) 감소했다.

광주은행과 농협은행 다음으로 광주에 많은 지점을 낸 KB국민은행은 5년 새 지점을 6곳(-25%) 줄이고 대신 출장소를 2곳 늘렸다.

19개 국내은행의 임직원 수도 2014년 11만9608명에서 지난해 11만8913명으로 700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 나온 비대면 은행업무는 이제 전반으로 퍼지는 모양새다.

NH농협은행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일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2조원 규모 자금을 편성하면서 모바일 등 비대면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오는 5월4일부터 영업점에서 처리했던 하나카드 업무를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신용·체크카드 발급 신청을 제외한 분실, 재발급, 포인트, 선결제, 결제일 변경, 가맹점 및 각종 변경 업무 등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고객센터를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 8일부터 대구·경북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화기기·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 수수료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면제한다.

광주은행은 대출심사 서류를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제출할 수 있는 전자적방식을 기업고객 대상으로 확대했고, 서민금융 정책상품 'KJB햇살론17'을 모바일 기기로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출시 1달 만에 가입 계좌 3500좌를 넘긴 광주은행 '해피라이프 여행스캐치' 외화적금 가입방법은 은행창구와 인터넷뱅킹은 물론 스마트뱅킹, 모바일웹뱅킹으로

확대해 고객 접근성을 높였다.

신한은행은 지난 달 31일부터 대출신청·심사·실행 등 전 여신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전에는 고객이 급린하오구권을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더라도 이후 과정은 직원이 직접 처리해야 했다.

현재 신한은행 모바일 앱 '신한 쏘'에서 총 92개 업무 가운데 대출금통장 신규 개설·대출 등 73개 업무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직장인 대상 비대면 통합 신용대출인 '우리 원(WON)하는 직장인 대출'을 최근 출시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대출 한도와 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807.14 (-16.46)	↓ 금리(국고채 3년) 1.024 (-0.023)
↑ 코스닥 607.37 (+0.47)	↓ 환율(USD) 1220.90 (-0.30)

광주국세청, 영세업자 부가세 고지 유예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석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를 유예하거나 제외하는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지역 내 개인 일반과세자 19만1000여명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도록 예정고지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사업자 8만5000여명은 7월27일까지 고지를 유예하고 직전기 매출액 4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 5만2000명은 고지를 제외한다.

이번 조치로 당초 예정고지 대상인 19만1000여명 중 72%에 이르는 13만7000여명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는다.

이밖에 법인사업자 역시 코로나19의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신고6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고, 물품조달 중단으로 피해를 입어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법인이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연장한다.

여기에 광주국세청은 중소기업 등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22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4월말까지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나주배·양봉 농가들기 aT, '배속 밀키트' 판매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나주 배 농가가 가공식품으로 판로 넓히기에 나섰다.

8일 나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1~3월 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감소했다. 나주지역은 전국 배 재배 면적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배 주산지다. 이곳 전체 매출도 소비 침체로 30% 가량 줄어든 상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학교 급식 연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주 배 농가와 양봉농가를 돕기 위해 '배속 밀키트'를 만들어 판매하기로 했다.

aT는 나주로컬푸드, 한국양봉농협과 배속에 대추, 계피, 생강 등을 넣어 밀키트(간편식) 형태로 시험 제작한 뒤 지난 7일 aT 본사에서 판매 행사를 벌여 150개 모두 판매했다. 또 배속 재료 100인분과 토종 꿀 50병을 나주지역 노인요양시설 등에 기부했다.



'상호금융대상' 평가 남평농협 대상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 앞줄 왼쪽 네번째는 최근 열린 농협중앙회 '2019년 상호금융대상' 평가에서 나주 남평농협 '대상' 등 14개 지역농협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을 전달했다.

한전, 소상공인 전기료 납부 유예 6월까지 접수

한국전력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기한 유예 신청을 오는 6월30일까지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유예 신청은 한전 홈페이지(cyber.kepco.co.kr)와 콜센터(123)를 통해 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4~6월분 전기요금을 3개월씩 유예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다.

당월 요금의 납부를 유예하려면 해당월

분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납기일이 25일인 고객이 4~6월분 모두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달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전에서 요금청구서를 수령하고 한전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단독계소 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한전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집합상가 등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가 신청 내용을 취합해 한전에 일괄적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한다.

전통시장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상인연합회(시도지부)가 확인한 신청서를 한전에 제출하는 경우 더욱더 신속하게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벼랑 끝 소상공인 살린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

대환 고객 40% 신용등급 상승 개설 4개월...200명에 50억 대출

광주은행 '포용금융센터'의 고금리대출 대환 이용자 10명 중 4명이 신용등급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은행은 지난해 총장로5가에 문을 연 포용금융센터 이용 소상공인이 개설 4개월 만에 200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 취약계층으로, 포용금융특별대출을 통해 총 50억 원의 지원을 받았다.

포용금융센터의 무료 경영상담을 받은 지역 소상공인은 130명에 달한다.

포용금융센터는 기본 금융업무 외에도 소상공인과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자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자금지원, 경영상담, 세무·상권분석, 교육 등을 하고

있다. 전문 컨설턴트와 상주 직원 7명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정오 근무하고 있다.

또 센터의 고금리대출 대환을 이용한 10명 중 4명(40%)은 신용등급이 최대 3등급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은행이 이윤객 124명을 분석해 보니 총 49명이 신용등급을 올렸다. 3등급 이상 상승은 4명이었고 ▲2등급 12명 ▲1등급 33명 등으로 집계됐다.

포용금융센터는 2금융권과 대부업 등 고금리대출 사용자를 1금융권으로 포용하는 신용관리서비스(CMS)를 시행하고 있다.

정일선 포용금융센터장은 "현장에서 코로나19 피해로 임대료·인건비 등 긴급 운영자금에 절실하게 필요한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나 상담하면서 광주·전남 대표 은행의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소상공인의 아픔을 공감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신속한 의사결정과 적기의 자금지원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금호타이어, 영화관 대피 광고 새롭게 선보여

도로·로로 캐릭터 리뉴얼

금호타이어(대표 전대진)는 전국 멀티플렉스 CGV에 신규 비상대피도 안내광고 '도로, 로로의 무사히 영화 보는 비상 액션' 편을 선보였다고 8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2010년부터 CGV와 캐릭터 '도로'와 '로로'를 활용한 극장 비상대피도 안내광고를 진행해왔으며, 이를 통해 고객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 이미지를 전달하고 브랜드 호감도를 높였다.

이번 광고는 지난 광고와 달리 '도로',

'로로'를 새롭게 리뉴얼 하고 도로, 로로의 댄스를 통해 친근함과 재미 요소를 강조한 게 특징이다.

서울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전국 CGV에 교체 완료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대표 캐릭터인 '도로'는 TV 광고뿐만 아니라 극장 광고를 통해 많이 알려지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도로를 통해 금호타이어 브랜드가 남녀노소 모든 고객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갈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이농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0년 4월호

3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시민공간으로 부활 전일빌딩 245

문화 기획: 문화 예술인 지원, 창작의 자생력을 키우자

시리즈 이야기: 고향팀에서 마지막 풀치는 KIA 타자 최형우

특집

시민공간으로 부활 전일빌딩 245

- 광주의 시간 새겨 리모델링, 개관 눈앞
- 언론 1번지·문화 중심, 공간의 역사
- 전일빌딩 245 성공을 위한 조건

문화 기획: 문화 예술인 지원, 창작의 자생력을 키우자

시리즈 이야기: 고향팀에서 마지막 풀치는 KIA 타자 최형우

에ditorial

식물 지킴이, 국립수목원장 이유미

"위로 주는 '나의 나무' 심어주세요"

문학이 숨쉬는 문학관을 찾아서
작가 조정래의 치열한 창작여정
벌교 태백산맥문학관

도시디자인, 행복한 도시 풍경의 완성
시민참여가 빛나는 디자인 도시
핀란드 헬싱키

문학 트렌드
공연장이 더
친근해졌어요

행복한 동행, 반려동물과 함께하기
다견가정 별 달 밤이네
'함께 있을 때 충만'

전시 리뷰
ACC <이주 서사>전
유현준의 도시건축
종교는 공간을 원한다

간강 정보
가족 면역력 키우기,
봄나물을 추천합니다

사육사육 남도 한 바퀴-담양
자연, 인문 향기 쫓아
담양 새봄 여행
- 싱그런 생명, 소담한 문화
- 상큼한 딸기, 달콤한 유과